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지역사회 상생협력 · 동반성장’

국가 핵심 전략 사업인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해 2010년 설립되어 바이오 헬스 산업 분야 공공영역의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위탁생산(CMO), 위탁개발(CDMO), 시험평가인증기관, 규제과학지원 기관, 인재양성기관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관이다.

2019년부터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에 이름을 올린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그 주인공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특화산업 연계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소외계층 후원 ▲지역 환경정화 활동 등 지역사회와 상생 · 협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되어 지역사회 발전과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차상훈 이사장을 만나봤다.

(편집자주)

Q. 지역사회공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ESG(환경 · 사회 · 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상생과 협력’이라는 재단의 핵심 가치와 연계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책임을 다하고자 사회공헌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

‘재단의 발전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지역의 발전이 재단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재단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상생협력에 중점을 두어 협력기관과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경.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선정 청소년 진로체험 · 소외계층 후원 등 펼쳐

Q. 사회공헌활동으로 주로 어떤사업을 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재단 특성화 재능 나눔과 지역 밀착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재단 특성화 재능 나눔은 재단의 핵심역량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해 진로체험(현장직업체험) 및 개별 맞춤형 진로 멘토링, 재능기부 강연 등 지역 청소년의 진로역량 향상에 도움을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지역 밀착형 활동으로는 후원금 모금 및 물품 지원, 지역 행사 및 축제 지원, 환경정화 활동 등 지역 내 소외계층(사할린 한인영주귀국주민 등)을 위한 기부 및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 지역사회복지시설 후원, 취약계층 도서 기부, 사랑의 헌혈 운동 등 공공기관으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Q.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에 선정된 배경을 꼽는다면?

지역사회 현안에 귀를 기울여 문제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프라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역특화산업(바이오 의료산업 분야) 연계 지역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후원, 환경정화 활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것이 선정된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Q. 사회공헌활동으로 얻은 성과는?

지역 사회공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외부 파트너십 확보이다.

오송지역의 사회공헌 네트워크인 ‘오송사회적가치실현협의체’는 오송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직원들 모습.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식품관리인증원 등 4개의 공공기관이 각 기관의 전문성을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발족된 합동 협의체이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뜻을 모아 협력했던 과정들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임직원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 등으로 노력이 큰 결실을 거두게 됐다.

Q.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일회성 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발굴,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재단이 잘 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활동을 파악하고 실천하며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공급자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조사 · 협업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사가 공동 사회공헌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전략 수립 시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실행과제로 반영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가치 실현을 위해 양방향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Q. 앞으로 지역사회공헌 계획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함으로써 지역의 복지 욕구 및 사회적 이슈에 대응해 재단만의 한 차원 높은 사회공헌활동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상생의 허브 재단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며 지속적인 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함께 사회적 책임 수행 및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시설물 관리 맡는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이하 협의회)가 2022년 9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4개월 동안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이하 센터) 시설물 관리 위탁을 맡게 됐다.

센터는 2006년 건립된 전국 최초의 광역단위 지원기관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5,570.51㎡ 규모로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사회복지 관련 단체 12개소가 입주해 있다.

시설물 관리 위탁과 더불어 센터에서 진행됐던 일부 사업은 10월부터 협의회로 이관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석 회장은 “협의회가 2006년부터 센터를 위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물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 사회복지 현장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는 장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전경.



6일 충북도, 사랑의열매, 충북아동복지협회, 삼성은 ‘보호아동 · 청소년 자립 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소년 자립지원 ‘삼성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건립

청주 오창산업단지 내 도유지 제공... 2023년 12월 개소

충북도와 삼성전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아동복지협의회가 ‘보호아동 · 청소년 자립 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보호종료로 앞둔 아동과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힘을 모았다.

6일 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정배 삼성전자 매모리사업부 사장, 조흥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권현숙 충북아동복지협회 회장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충북도는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건립을 위해 오창산업단지 내 도유지를 제공하고 삼성전자는 센터 건립과 운영을 위해 3년간 50억 원을 지원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충북아동복지협의회와 협력하여 사업 전반을 수행 관리하게 된다.

2023년 12월 개소를 목표로 건립되는 희망디딤돌 충북센터에는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원룸형태 1인1실의 주거공간(25실)과 자립생활체험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을 설치하여 일상생활 적응, 재정관리, 진로상담, 취업교육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도내에는 아동양육시설(10개소), 공동생활가정(24개소), 위탁가정(337세대)에 아동 1500여명이 보호받고 있으며 이중 매년 120~140여명이 보호종료되어 자립준비청년으로 진입하며 이들을 위해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2016년 임직원 기부금 250억원으로 출발한 ‘삼성희망디딤돌’은 2019년 회사 지원금 250억원이 추가되면서 사업이 확장됐다.

이번 충북도와 협약을 통해 전국에 11개 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올 상반기까지 각 센터에 입주하거나 자립 준비, 자립 체험 등 지원을 받은 청소년은 누적 1만2839명이다.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043) 255-0504, 253-0504 FAX:(043) 222-0504

H.P: 010-9566-0504 E-mail: youhansa@hanmail.net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 · 스프링제본
칼라복사 · 칼라출력
대형코팅 · 현수막출력
대형칼라흑백출력

복사-출력 및 제본의 명가

단양군, 다문화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

무료 심리·정신건강 상담과 진료기관 연계 의료지원

단양경찰서(서장 김경태)는 20일 단양군보건소(소장 임은주), 단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안병숙), 단양군가족센터(센터장 장성숙)와 '다문화이주여성·외국인노동자·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경찰·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다문화이주여성 등 취약계층의 문제인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과 언어소통 부족, 문화이질감, 낮은 경제력, 부부갈

등 등으로 인한 심리불안정,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상호협력·공동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 활동으로 이들의 심리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삶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이 협약으로 단양지역 다문화이주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해 무료 심리·정신건강 상담과 진료기관 연계 의료지원이 가능하게 돼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정신



단양경찰서와 단양군보건소, 단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단양군가족센터 대표가 '다문화이주여성·외국인노동자·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태 단양경찰서장은 "앞

로도 단양경찰서 취약계층의 안정적 삶을 영위 하는데 최선의 활동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군은 16일 생가진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진천군,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진천군은 16일 생가진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엽)가 주관한 이날 기념식엔 송기섭 군수를 비롯해 진천지역의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사회복지유공자 표창,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홍보 동영상 시청 등 봉사자들의 사기 증진과 진천군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개선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진천군 저소득 취약계층 900여 가정에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진천군 기초푸드뱅크 방동·냉장 탐차 기증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진천군 사회복지대상은 대한적십자사 봉사의 진천군지구협의회(회장 이명환)에게 수여됐다. 이 단체는 지난 1995년부터 27

년 넘게 기간 지역의 소외된 취약계층,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희망과 위로를 전달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진천군수 표창에는 김주옥(대한농인회 진천군지회)·이정은(진천읍행정복지센터)·김가을(중앙제일병원) 씨가, 군의장 표창은 조용숙(진천군노인복지관)·안순화(한국청소년육성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오미옥(조평노인요양원) 씨가 각각 수상했다.

또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엔 손재숙(진천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서범석(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이상은(사랑나눔지역아동센터)·최문숙(진천군다함께돌봄센터) 씨 등 10명이 수상했다. 탐차 구입 기금 모금에 기여한 진천상공회의소와 진천군기업체협의회에는 공로패가 전달됐다. 기금을 보낸 9개 기업·단체는 SKC(주) 진천공장, (주)원진, (주)영마트, 영신퀴즈(주), 비에이치앤비이오(주), (주)창조종합건설, 삼우화우정, 진천군농협운영협의회 등으로 이들 기업 등에도 감사패가 전달됐다.

청주시, 학대피해아동 안전 주거환경 제공

민관 4개 기관, 학대피해아동 주거환경 개선 업무협약



청주시가 21일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등 3개 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주거환경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주시가 학대피해아동 주거환경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1일 시는 임시청사 3차실에서 학대피해아동의 정서 안정과 재학대 예방을 위해 충북아동보호전문

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청주시회복지관, 충북주거복지센터사회적협동조합 등 3개 기관과 중지를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세동 청주

시 부시장, 최은희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 김석호 청주사회복지관장, 김덕수 충북주거복지센터사회적협동조합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대상자 추천 및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청주시), 대상자 추천 사례관리(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주거환경 개선 지원(청주시회복지관), 주거개보수 기술자문 및 공사 지원(충북주거복지센터사회적협동조합)을 하

기로 했다. 올해는 총 5천만 원(청주시 3천만 원/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청주사회복지관 2천만 원)을 투입해 10가구의 아동에게 방만들기와 이사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학대피해아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민·관이 협업체 위거정에서 보호되는 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방 만들기,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사, 재학대 예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 영 석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 상 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vms043@naver.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주시 아동 후원금 전달

저소득가정 아동 8명에, 4,725만원 지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부는 20일 충주시 저소득가정 아동 8명에게 코로나19 회복자원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차용기)는 20일 충북충주시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코로나19 회복후원금 4,725만원 을 지원했다. 코로나19 회복지원사업은 취

약계층 아동가정이 코로나19에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긴급지원사업이다.

후원금은 충주시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 추천으로 선정된 아동 8명에게 전달됐다.

보유비나 학습비, 주거비 등 아동 상황에 맞게 240만원에서 280만원까지 지원됐다.

차용기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 5월 3일 충주시와 아동 후원을 약정한 바 있다.

충주시, 교통약자 이동수단 '행복콜' 운행방식 대폭 개선

24시간 운행, 즉시콜 시행 등

충주시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해 '행복콜' 운행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하던 행복콜을 24시간으로 확대 운행한다.

또 하루 3대의 차량은 즉시콜 차량으로 배차해 시범운영한다

는 계획이다. 기존엔 사전 예약을 통해 행복콜 이용이 가능했지만 즉시콜이 시범 도입되면 사전예약 없이도 행복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즉시콜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 폰 앱과 배차시스템을 포함한 충청북도광역이동지원체계 구축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부터는 즉시콜을 도입해 현재 시스템인 예약콜과 병행 운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충북도내 이동이 가능한 광역이동 전용 차량 2대를 충북도로부터 배정받아 내년 초부터 일상생활 목적으로 도내 전역 이동이 가능하게 해 방침이다.

조길형 시장은 "이번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와 ICT융합 주제 '음성복지포럼' 개최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제4차 음성복지포럼이 '사회복지와 ICT융합, 그 도전과 과제' 주제로 개최됐다.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진용)가 주관한 제4회 음성복지포럼이 지난달 30일 군청에서 사회복지 각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와 ICT융합, 그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강동대학교 이장희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청주대학교 홍석호 교수의 발제

를 시작으로 한국교통대학교 한규량 교수, 미스터마인드 김동원 대표,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장은하 교수, 극동대학교 박보영 교수가 참석해 "ICT 기술의 국내연구동향과 사회복지 현장의 적용 가능성 및 음성군의 지향점" 등의 내용으로 토론을 전개했다.

이건용 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논의됐던 사회복지와 ICT 융합을 통해 음성군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복지 문제에 적용해 톨볼이 필요한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천시, 저소득층 암환자 대상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

제천시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암진단 검사비, 치료비와 관련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성인 암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연속해서 3년간 지원하게 되며 소아 암환자는 소

득·재산 조사결과 적합한 만 18세 미만 대상자로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백혈병의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2021년 7월부터 의료비지원사업 개편에 따라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신규 지원이 중단됐으나 예외적으로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후 만 2년 이내 5대 암(위암, 간암, 대장

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받거나 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증 시 급여 본인부담금만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 사업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시민보건팀(043-641-3173)으로 문의하면 된다.

"맛있는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 가능기한	구분	종류	모집 가능기한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즉석식품	면류(리얼,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통조림	참치, 정조림, 과일통조림 등	수건류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정류 및 식용류	정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기저귀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최소 60일 이전
신선 식품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음료류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음료류	육가공류	햇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제빙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별류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번호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옥천, 남부권 공공의료기관 설립 촉구

299회 정례회서 '지자체 의료환경 개선 건의문' 채택

옥천군의회는 21일 열약한 지역 의료환경개선을 위해 공중보건조사 적정 인력 배치와 남부권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촉구했다. 군 의회는 이날 열린 299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의료환경 개선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박찬범 의원은 "현재 지역별 공공 의료

자원의 공급 격차로 비수도권과 농촌지역의 의료기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지역 의료 서비스 악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옥천군 관내 등록 의사는 공중보건조사(17명)를 포함, 97명으로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1.94명이다. 2020년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옥천 관내 의사 수는 전국 평균인 2.5명보다 적

다. 전국 공중보건조사 인력 감소로 공중보건조사 배치 인력도 2018년 19명에서 2022년 현재 2명이 줄어든 17명이다. 박 의원은 "2018년과 같은 수준의 의료 인력이 배치돼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이뤄지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질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내 11개 시·군 중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보은·옥

천·영동군의 의료현실을 고려해 주민이 차별 없이 필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지역적 균형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중보건조사 대부분이 민간 의료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관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고령자, 독거노인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열악한 농촌지역 의료현실을 감안해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옥천군 드림스타트에 후원금

7499만9000원 전달... 코로나19 회복 지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가 21일 옥천군청을 방문해 옥천군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위한 코로나19 회복지원사업 후원금 7499만9000원을 전달하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차용기)는 21일 옥천군청을 방문해 옥천군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위한 코로나19 회복지원사업 후원금 7499만 9000원을 전달했다. 코로나19 회복지원사업인 'RECOVERY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과 아동 가정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아동 227가정이 긴급생계비, 학원비, 학습교재 교구 구입비, 주거환경개선비 등을 지원받는

다. 차용기 본부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지만 어려운 형편에 직장을 잃고 생계가 막막한 드림스타트 가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돼 드리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양중식 주민복지과장은 "물심 양면으로 애써 주시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 차용기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영동군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만족도 '최고'

조사결과 82% 만족, 노인복지 증진 역할 톡톡

영동군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이 고령화 농촌사회 최고의 노인복지 시책으로 꼽히며 참여자 대부분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대한노인회영동군지회는 최근 2022년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노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은 앞으로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의 개선과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했다.

설문 대상자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12개 사업단 806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개월에 걸쳐 참여자 만족도, 참여 후 효과 등 8개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795명(98.6%)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이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왔고 참여 활동으로 인해 경제적 도움,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등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활동 참여 동기는 본인 관심(39.6%), 이웃·친구 권유(37.7%), 주민자치센터 등 소개(15.5%), 이용중인 기관의 소개(7.2%) 등을 통해 참여하게 됐으며 참여하게 된 이유는 용돈마련(37.2%), 생활비 마련(25.9%), 사회활동 참여(11.6%), 여가활동(10.7%), 친교유지(8.3%), 건강유지(6.3%) 등으로 나타났다. 참여효과로는 경제적인 도움(47.9%), 건강증진(24%), 긍정적인 성격변화(15.1%), 사회적 대인관계 개선(9%), 자기발전과 성취감(3.6%) 순으로 고령층 소득 불안정 완화와 함께 신체적 건강과 긍정적인 성격 변화에 효

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자 만족도는 매우만족(28.2%), 만족(53.8%), 보통(17.7%) 순으로 참여자 82% 정도가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대비 만족도가 3% 이상 높았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95.6%가 앞으로도 계속 노인일자리 사업에 재참여를 희망했다. 참여자 중 4.4%는 건강 등의 이유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는 설문조사 결과와 기타 의견수렴 내용 등을 토대로 사업을 살펴 군과 함께 노인 자신감 획득, 소득보전, 건강증진 등을 꾀하기로 했다.

증평군, 영유아 민간병원 필수예방접종비 전액지원

5개 병·의원 위탁기관 지정 총 17종 감염병 예방에 온힘

증평군보건소는 만 12세 이하 영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

로 필수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는 감염병 유행을 방지하고 병원체의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가 먼 주민들이 편리하게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도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5개 병·의원을 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총 17종의 감염병 예방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증평군 예방접종 대

상 아동들의 결핵, B형 간염, 파상풍 등 접종률은 98.8%다. 보건소 홈페이지와 예방접종 행정지원사이트를 통해 가까운 지정 민간의료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보은군, 장애인을 위한 '영화 보는 날' 지정

매월 셋째주 목요일 보은영화관에서 운영 영화관람료 1인당 3천 원 매월 최신 영화 관람

보은군은 결초보는 문화누리관의 보은영화관에서 군내 장애인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이달부터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을 '영화 보는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이날 장애인들은 2천 원만 내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나머지 3천 원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원한다.

관람을 원하는 장애인은 군 장애인단체연합회, (사)충북지체장애인 협회 군지회, (사)충북농어인협회 군지회, (사)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군지회 등 장애인단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앞으로 장애인은 물론 청소년, 주민 모두가 문화 수요 욕구를 충족하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할 계획이다. 보은읍 이평리 결초보는 문화누리관 안에 있는 보은영화관은 54석, 37석 규모의 2개관을 갖추고 있으며,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최신 영화를 상영한다. 김인식 군 주민복지과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줄어들고, 신체적 제약으로 문화 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많아 안타까웠다"며 "우리 지역의 문화시설을 활용해 앞으로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더 힘쓰겠다"고 했다.



보은군은 지난 15일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보은군 청년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했다.

보은군 청년위원 위촉식... 청년정책 활성화 기대

15명 청년위원 위촉장 전달... 임기 2년 올해 11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예정

보은군은 지난 15일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보은군 청년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재형 군수는 직접 15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격려했으며, 강성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우)우성의 대표 김우성 위원을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청년정책의 방향 등 군 청년정책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6월부터 '보

은군 청년 기본조례'에 근거해 내실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위원회 위원 15명 중 만15세부터 만39세 이하인 6명의 청년위원을 공개 모집했다. 청년위원회는 청년 일자리 및 고용 정책뿐만 아니라 청년주택 안정, 청년문화 활성화, 청년복지 확충, 청년권리 및 참여기회 확대에 대한 청년정책 조정·협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주요 청년정책들을 심의하며,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아울러 청년위원들이 보은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꼭 필요한 청년정책을 발굴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청년 창업·취업 지원, 청년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청년 귀농·청년 귀촌자들을 유입해 군 인구증가 시책의 초석을 다질 예정이다. 최재형 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청년들이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은군은 청년 관련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청년 친화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오는 11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괴산군, 취약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월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 지원

괴산군은 군민들의 평생학습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중원대학교와 협업하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부터 군은 문화 혜택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중원대학교와 협업해 수명 프로그램 수강료 일부를 지원해왔다. 기존에는 월별 선착순

100명에게 지원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월 15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프로그램 참가는 주민등록 주소가 괴산으로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수강희망자는 매월 20일경 중원대학교 평생교육원(043-830-8223)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 운영으로 그동안 평생학습 기회가 부족했던 취약계층의 참여를 높여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평생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로 더 많은 주민들이 평생학습을 접해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슬지 대리 (T.043-234-0840~2)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50,000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전달 방식 다양화·사회서비스 고도화 시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의 날 맞아 토론회 개최



7일 열린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는 지난 7일 '제23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상목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랜드볼룸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상목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랜드볼룸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탈 격차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사회복지 전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했다. 또한 정중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인사말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토론회에서 도출된 정책 발전방향과 혁신전략이 체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사회서비스 혁신과제 및 전략에 대해 발표했으며 서상목 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 김광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심정영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사무총

장, 윤귀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이호영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참석하여 사회서비스 현안이 직면한 문제를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종일관 열띤 분위기로 토론회가 이어졌다. 한편 민간사회복지 대표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현황과 복지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해 열린 이날 토론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인 '나눔채널' 공감함을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신청 절차, 시행령 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청하는 세부 절차가 시행령으로 규정된다. 장애인복지시설 범위에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포함되는 등 장애인 관련 제도가 개선·보완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지난달 30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성인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 서비스(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 하는 것)에 신청할 때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절차가 보다 분명해진다.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서비스종합조사 점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종합조사 대상과 항목을 지침으로만 운영하다가 이번 시행령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해 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2021년 1월28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시설이 장애

인복지시설에 포함된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인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장애인복지서비스팀으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사에 필요한 의료급여 관련 자료를 직접 보유기관에 요청해 확인할 수 있다. 영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그동안 장애인들이 장애정도 심사와 관련해 증빙자료 제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같은 불편이 다소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만9~24세 대상... 연간 최대 15만원 구매권 지원

여성가족부는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월 1만 3000원, 연 최대 15만원의 생리용품 구매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만 9~24세 여

성청소년이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

므로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구매 지원금(포인트)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해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서비스 신청 후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생리용품 구매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생성되며,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보유한 경우 새

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여가부는 2018년부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9년부터 현물 지급에서 구매권 지급으로 전환해 행정적 편의를 높였다. 여가부는 2023년 저소득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7.6% 증가한 135억74백만원 예산을 마련했다. 종전에는 월 1만2000원이던 구매권 금액은 지난 7월부터 월 1만3000원으로 늘렸다. 또 올해부터는 대상 연령을 만 11~18세에서 만9세~24세로 확대했다.

'출산하면 70만원' 해산급여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전국에서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산급여는 분만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올해 기준 출생아 1인당 70만원이 지급된다.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매장 등 장제조치를 하도록 지급되는 급여로 사망자 1인당 80만원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해산·장제급여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제출할 수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

청장은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맞춰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정책관은 "그간 해산·장제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에 신청하여야 하는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년 아동학대 신고 5만3932건... 1년만 27%↑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건수

(단위: 건)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신고건수 (증가율)	34,169 (15.1%)	36,417 (6.6%)	41,389 (13.7%)	42,251 (2.1%)	53,932 (27.6%)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	30,923	33,532	38,380	38,929	52,083
학대 판단건수 (증가율)	22,367 (19.6%)	24,604 (10.0%)	30,045 (22.1%)	30,905 (2.9%)	37,605 (21.7%)

코로나 첫 해 학대신고 주춤... 학교 문 열자 급증 사망 40명 중 14명, 부모가 자녀살해후 극단선택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가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학교와 유치원이 정상화되면서 숨겨진 학대가 드러난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발간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5만3932건으로 전년 대비 27.6% 증가했다. 신고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만7605건으로 전년 대비 21.7% 늘었다. 이중 재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5517건, 피해아동을 가정으로 부터 분리보호한 사례는 5437건이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가 크게 증가한 이유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의심사례를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점,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 강화, 2021

년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학교 등 외부에서 위기징후를 발견하는 사례가 증가한 점 등을 꼽았다. 실제로 2018년 6.6%, 2019년 13.7%씩 빠르게 늘어났던 아동학대 신고는 코로나 사태 첫해인 2020년 2.1% 증가하는데 그쳤다. 학교와 어린이집 등이 휴교하면서 교사 같은 신고의 무자의 의심신고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해 학대로 숨진 아동은 전년보다 3명 감소한 40명으로, 이 중 24개월 미만 영아가 15명이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자녀 살해 후 극단선택'으로 사망한 아동도 14명에 달했다. 복지부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을 시도하거나 실제로 같이 사망한 경우가 14명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수 년째 아동학대 10건 중 8건

은 가해자가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전체의 83.7%(3만1486건)를 차지해 전년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 이어 교직원 등 대리양육자 9.6%(3609건), 친인척 4.0%(1517건) 순이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이 폐지됐지만 여전히 훈육 과정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폭언 등 아이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아동인구 1000명당 학대사례 발견비율)은 2017년 2.64%에서 지난해 5.02%까지 상승했다. 다만 미국(8.4%), 호주(12.4%) 등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번 연차보고서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추진 상황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자동차 무상 정비 '드림카 프로젝트' 접수

3,000cc 이하·실사용 2년 이상 장애인 차량에 한해 신청기간 12월 9일까지... 이메일·우편·팩스 등 제출

한국장애인재단(이사장 이성규)과 삼성화재에너지카손사(대표 이사 손은식)가 함께하는 장애인·장애인단체 자동차 정비사업 '드림카 프로젝트 시즌10'이 8월부터 시작되어 수요자를 모집한다. 드림카 프로젝트는 전국의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자동차를 무상 점검·정비하는 사업으로, 2013년 드림카 1호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400대의 차량을 정비해왔다. 신청자격은 장애인 명의의 3000cc미만의 차량으로, 취득

후 실사용기간이 2년 이상, 주행거리 3만 이상 30만 이하이며 국세청 차량가액 2500백만원 이하이다. 개인의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에 해당되거나, 중위소득 80%이하의 중증장애인이다. 단체의 경우 장애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실제 사용되는 차량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2월 9일까지,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www.herbnaum.org)에서 신청서류를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우편, 팩스 중 하나로 제출하면 되

며 선착순 모집으로 진행된다.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은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자동차는 신체 일부이자 사회참여 수단이다. '드림카 프로젝트'가 장애인의 일상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드림카프로젝트를 통해 장애인차량의 피해가 있다면 조속한 수리와 함께 이동권 증진을 위해 힘쓰고자 한다. 선정된 차량은 삼성화재에너지카손사 우수협력정비업체에서 전문 정비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신청서 작성을 포함한 제출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개인 신청자는 지역 기관(장애인단체, 복지관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2. 위촉 기준

-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4. 신청 및 문의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과 김민지 대리

전화 043)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치매 극복의 날’ 3년 만에 대면 행사



충북도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인 '2022년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및 충북노인건강문화대축제'가 청주아트홀에서 개최됐다.

기념식 및 충북노인건강문화대축제 성황리 개최
유공자 표창·치매 안심센터 작품전시회 등 다채

충북도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인 '2022년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및 충북노인건강문화대축제'가 22일 치매에 대한 공감과 이해의 장 마련을 위해 청주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치매극복의 날(매년 9월21일)을 맞아,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센터장 이상수)와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준환) 공동 주최·주관으로 시·군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및 치매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어르신 공연팀(19개팀) 및 도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문화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과 충북노인건강문화

대축제를 한 자리에서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치매관리 사업 유공자 표창, 어르신들의 열띤 공연 및 축하공연, 치매안심센터 작품 전시회, 노인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꾸며졌다.

경연에는 13개 노인복지관에서 19개 팀이 참가해 합창, 기악, 건강체조, 전통무용, 실버댄스 부문으로 축제의 장을 펼쳤다.

그리고 부대행사로 열린 치매안심센터 작품 전시회는 도내 14개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 이용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그림과 감동적인 글이 어우러져 행사장을 찾은 많은 이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곽홍근 도 보건정책과장은 "오늘 행사를 계기로 도민들의 치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은 한가위를 맞아 복지관 이용자 400명을 대상으로 '행복 가득 한가위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

‘행복 가득 한가위 선물꾸러미’ 전달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포토존·전통놀이체험도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박미선)이 한가위를 맞아 지난 2~8일까지 복지관 이용자 400명을 대상으로 '행복 가득 한가위 선물꾸러미'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다시금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1년에 이어 명절의 따뜻함을 담은 선물과

감사카드를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더불어 추석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포토존 및 전통놀이 체험, 달남에게 소원을 말해봐 등의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여 한가위 행사의 풍성함을 더했다.

복지관 이용자 A씨는 "달남에게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빌

며,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용자 B씨는 "민속놀이 체험 등 한가위 맛이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 너무 좋았고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박미선 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지치고 힘들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보다 풍요로운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에 지속적 관심 절실”

(주)선엔지니어링, 청천재활원·다운빌에 1천만원 기탁

지난 6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주)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회장 오선교, 대표 신동안)는 사회복지법인 마당(대표이사 한상길) 산하시설인 청천재활원·다운빌에 후원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주)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회적 관심이 더욱 절실한 중증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인 후원금 전달 등 안정적인 장애인복지 기반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신동안 대표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각종 기상이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작은 사랑이라도 나누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관심이 필요한 이웃은 더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큰 벽으로 다가올 수 있어 언제나 희



(주)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는 사회복지법인 마당 '청천재활원·다운빌'에 후원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망을 품고 당당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는 충북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은 물론 중증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2천5백만 원의 후원금 전달을 통해 나눔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고독사예방사업 ‘고립보다 Go Life’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협의체,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승한, 이하 복지관)과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전국 기획사업 선정에 따라 최대 3년 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사업인 '고립보다 Go Life'를 실시

한다.

'고립보다 Go Life'는 사회관계 단절 및 가족체제로 인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급증을 막기 위해 기획됐다.

복지관과 협의체는 이 사업을 통해 매년 1억원의 예산으로 3년간 충주 시내에 거주하는 1인가

구 장년층(만50세~64세이하) 및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반찬 배달서비스, 요구르트 안부확인, 개별 위기지원, 관계 맺기, 사례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원한다.

사업기간은 지난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로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전화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자 중 지원요건을 확인 후 최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가복지팀(043-856-1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 정신건강 온라인 박람회 개최

청주시 상당·서원·흥덕·청원보건소와 청주시 상당·서원·흥덕·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는 9월 10일과 10월 10일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맞

아 정신건강 온라인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운영되며 온라인 가상세계(메타버스)에

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다.

생명의 소중함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온라인 박람회는 기념동, 강연동, 문화예술동, 정보동, 참여동으로 운영되며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관계자는 "이번 행사로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과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온라인 박람회는 홈페이지(www.cjmhday.com)를 통해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다.

“메타버스 타고 상담 받아요”

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달 14일까지 박람회 운영

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윤은미)가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상담복지박람회를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3주간 운

영한다. 이번 메타버스 in 청소년상담복지박람회(이하 박람회)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공간에서 실

시간 상담과 심리검사, 체험활동, 이벤트, 유명인 특강 등 다양한 온라인 부스로 꾸러진다.

또한 박람회 부스는 다양한 유관기관이 참여해 가상공간 오비스(6Vice) 안에 구현한 콘텐츠로 상담존, 체험존, 기관홍보존, 특강존으로 나뉘진다. 참여대상은 청소년 및 학부

모 등이며 참여자들은 https://jpmeta.imweb.me/를 통해 접속해 편안하게 박람회를 즐길 수 있고 기프티콘도 받을 수 있다.

윤은미 센터장은 "이번 온라인 박람회를 통해 고민과 걱정을 희망과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3500만원 상당 150세트

청주시 오창읍에 위치한 이차전지 제조업체인 (주)에코프로(회장 이동채)는 지난달 30일 청주시청을 방문해 저출산 극복과 저소득 가정 출산을 지원하는 출산 축하용품 150박스(35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박종희 희망복지팀장, 이동채 (주)에코프로 회장, 최형익 에코프로 사회공헌팀 이사, 차용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장, 김민경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전달된 출산축하용품 '마더박스'는 머리보호대, 턱받이, 바디워시, 접촉식 체온계, 젓병세트, 젓병술, 속싸개, 치발기 등 총



(주)에코프로가 지난달 30일 청주시를 방문해 350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 '마더박스' 150세트를 전달했다.

12종의 유아용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청주시 기업에서 생산하고 제조한 물품으로 구성돼 의미를 더했다.

(주)에코프로 임직원들이 포장해 만들어진 마더박스 150개는 출산을 앞둔 청주시 저소득 가정

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동채 회장은 "마더박스 지원을 통해 청주시 저소득 가정이 출산으로 인한 부담을 덜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애주기별 검색이 편합니다”

01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 고용및직업
- 주거지원
- 보육및교육
- 의료및건강
- 요양및돌봄**
- 정신및심리정서지원
- 문화및여가
- 권익보장및법률
- 일상생활지원
- 기타

02 지역을 선택합니다

- 청주시**
- 충주시
- 제천시
- 보은군
- 옥천군

03 생애주기를 선택합니다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성인
- 노인**

04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 행정복지센터/노인돌봄서비스/종일/노인
- 노인종합복지관/9988행복나눔미/종일/노인**
- 노인요양병원/노인장기요양서비스/종일/노인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명, 이용시간, 이용대상 까지 한번에 검색되는 '충북복지넷'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108조 9918억 원 편성

보건복지부(복지부)는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108조991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본예산(97조4767억원)보다 11조5151억원(11.8%) 늘어 처음으로 100조를 넘어섰다.

정부 총지출 예산 639조원 중 복지부 예산 비중은 17%로 올해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복지부는 △총중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 투자 혁신을 통한 복지·성장 선순환 △국민 생명·건강 보호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 회계별 예산은 '22년 대비 9.2%, 기금은 16.5% 증가
- 사회복지 분야는 '22년 대비 14.2%, 보건 분야는 0.6% 증가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세부 내용

1. 저소득층 등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5.47% 인상됐다. 이는 2015년 제도 도입 후 최대 폭의 인상이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해 주거용 재산기준을 개편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과 급여액을 확대했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는 올해보다 168억원 늘어난 56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대상 질환에서 외래진료의 경우 6대 중증 질환으로 제한됐으나 내년에는 모든 필수의료 질환으로 확대한다.

지원기준은 현행 연 소득 대비 의료비가 15%를 넘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10%만 초과해도 지원하고, 재산 요건도 완화한다. 지원 한도는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최근 '수원 세 모녀' 사고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시스템 개선 예산도 편성했다.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위기정보를 34종에서 39종으로 늘리고, 인공지능(AI) 복지사 시스템을 통해 상담을 실시하고, 지자체 복지업무 담당자는 고위험군을 위주로 상담한다.

아울러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지원금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28%에서 내년 30%로 인상하고 처분이 곤란한 실거주 주택은 재산액 산정에서 제외해 대상을 늘릴 계획인데, 이로 인한 증액분도 예산에 반영됐다.

또 '마음건강'에 대한 투자도 늘려 정신의료기 관 시설·장비 지원,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 등의 계획을 예산안에 반영했고 치료에 필요한 자살시도자·자살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2. 장애인

장애인 지원 관련 예산은 5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대폭 인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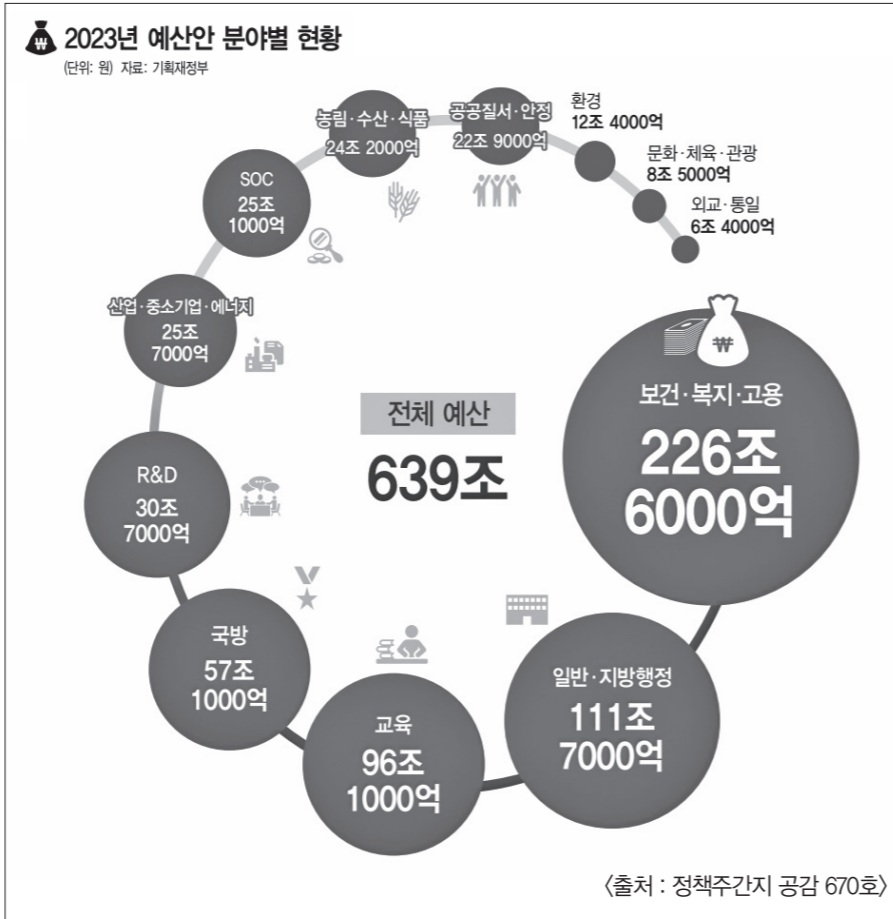
장애인연금은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장애인 일자리 2000개를 확충(총 29만5000개)하고, 개인의 근로능력에 따른 맞춤형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에게만 지원하던 출퇴근 비용은 중위 50% 이하의 중증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해 1만2000명이 신규 수혜를 받는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단가도 월 30만~80만원에서 월 35만~90만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도 1만4805원에서 1만5570원으로 5.2% 인상한다. 대상자도 1만1000명을 확대해 11만8000명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을 월 125시간에



지난해 대비 11.8%(11조 5151억원) 증가, 정부 총지출 639조원 중 17.0% 차지 감염병 대응 체계 고도화 2조원 이상 감소... 디지털헬스·바이오 예산은 증가

<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구분	2022년 본예산(A)	2023년 정부안(B)	전년대비	
			증감 (B-A)	%
총 지출(A+B)	974,767	1,089,918	115,151	11.8
◇ 예산(A)	622,729	679,735	57,006	9.2
◇ 기금(B)	352,038	410,183	58,145	16.5
◇ 사회복지 ①	806,484	920,659	114,175	14.2
○ 기초생활보장	144,597	164,059	19,462	13.5
○ 취약계층지원	41,482	46,026	4,544	11.0
○ 공적연금	314,921	371,590	56,669	18.0
○ 아동·보육	91,820	98,206	6,386	7.0
○ 노인	204,592	231,143	26,551	13.0
○ 사회복지일반	9,072	9,634	562	6.2
◇ 보건 ②	168,283	169,259	976	0.6
○ 보건의료	49,041	45,157	△3,884	△7.9
○ 건강보험	119,242	124,102	4,860	4.1

서 154시간으로 늘려 긴급상황에서도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40개소 신규 도입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해 서비스 간 칸막이 제거,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도 22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저상버스 4300대를 확충한다.

평생학습 도시를 15개소에서 53개소로 늘리고 스포츠강좌와 이용권 지원 인원을 1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도 200명에서 400명으로, 추가 활동지원 제공시간은 월 6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린다.

장애 조기발견·개입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영유아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을 전보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거점병원을 10개소에서 12개소로 늘린다.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도 14개 신규로 구축한다. 권역구강진료센터는 1개소 추가해 16개소가 된다.

3.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500억 증가한 2100억원을 투입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시설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연평균 15만원가량 지원한다.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치유·회복에 대한 국가지원도 강화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를 141개소에서 177개소로 늘리고 전담의료기관을 8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한다.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도 1000가정에서 1200가정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소득·주거 불안을 겪는 위기청소년 2000명에게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을 최대 월 55만원에

서 65만원으로 인상한다.

만 18세 미만 희귀질환아동 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의 소득기준을 중위 120%에서 130%로 확대해 2000만명이 더 수혜를 볼 전망이다.

저출생 대책에 전년 대비 1조4000억원 늘어난 7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만 0~7세 아동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에는 2조2564억원이 투입된다. 기저귀, 분유 바꾸처 지원수준도 8만원, 1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특히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부모급여'엔 1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원의 부모급여 지급한다. 이를 2024년에는 만 0세와 1세에게 각각 100만원, 50만원을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육환경도 개선한다. 연장형 보육료 단가를 32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고, 연장보육 지원대상에 6만명을 추가 지원해 48만명의 맞벌이 가정 돌봄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맞벌이 8만5000가구에 아이돌봄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시간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린다.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지원도 확대한다.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근로자·사업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2000억원 늘려 총 2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대상은 12만8000명에서 13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9000명에서 1만9000명으로 늘린다.

출산 후 산모·영아에 대한 모자 건강관리 사업도 전년 대비 9억원 늘어난 97억원을 투입한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보건소를 50개소에서 70개소로 늘린다.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도 5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한다.

아울러 한부모·다문화 가정에도 전년 대비 700억원 오른 5000억원을 편성한다.

한부모·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 선정기준을 상향해 3만8000명 추가된 25만9000명에

게 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한부모는 월 20만원, 아이가 청소년일 경우 35만원을 지원한다.

다문화 가정의 경우 학령기 가정에게 심리·진로상담 및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확대한다.

4. 노인

노인 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2조7000억원을 추가해 총 20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30만75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4.7% 인상한다.

지원 대상자도 628만명에서 665만명으로 늘린다.

기초연금의 국고보조율을 1.52%포인트(80.52%→82.04%) 인상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완화한다.

베이비부세 세대 노인에 대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집에서 일상적·주기적으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사회서비스형 85000만개, 시장형 19만개로 확대한다.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도 9000명에서 6만1000명으로 늘린다.

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맞춤형돌봄서비스를 55만명에서 늘리고 요양시설 6000개소에 CCTV를 새롭게 설치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대상도 각각 55만명, 30만명으로 확대한다.

5. 청년

가족돌봄청년(영계어려),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 실태조사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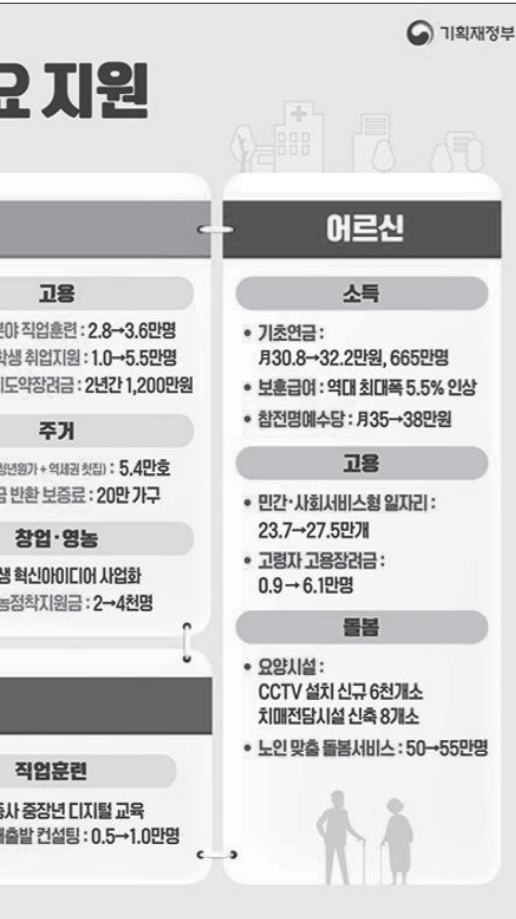
이와 함께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해 안부 확인과 생활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12월까지 실시한다.

중장년 1인가구, 한부모가구, 가족돌봄 청년에 대해 가사지원, 병행동행 자녀 등·하원 및 교육지원 등 생활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3만2000가구에 월 20만원 가량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아울러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에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청년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정부가 납입 금액의 최대 6%까지 매칭해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도 도입된다.

이번 청년도약계좌 대상자는 306만명 정도로 예상되며 현재 금리 수준을 감안하면 만기인 5년 후에는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3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 기금과 관련해 3조6000억원 수준의 예산도 반영됐다.



6. 감염병 대응

감염병 대응 예산은 전년 대비 2조4000억원 감소한 4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전 예방을 위한 예산이 줄어들었다.

△백신 1500만회분 추가 도입 및 의료기관 점중시행비 등 점중 뒷받침(9000억원) △5만4000건 신종 변이 바이러스 분석 및 근거 중심 방역 뒷받침(3000억원) △백신·치료제 개발 R&D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지속 투자(2000억원) 등이 편성됐다.

방역 대응을 위한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다. 감염 시 위중증 우려가 큰 60세 이상 고령자, 감염취약 시설 환자 등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유전자증폭(PCR) 검사 지원에 1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먹는 치료제 40만명분 추가 구매에 3000억원, 감염병 대응 통합관리를 위한 방역 통합정보시스템 및 감염병 예측·분석을 위한 원헬스 위해 정보시스템 등 구축에 200억원을 투입한다.

사후보상을 위한 예산도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상시 치료가 가능한 긴급치료보상을 1700개 신규 확보하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5개소를 구축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3000억원을 편성한다. 코로나19 확진 시 취약계층 등의 격리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지원에 1000억원을 쓴다.

7. 디지털·바이오헬스

디지털·바이오헬스 중심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R&D 사업에 1057억원을 편성한다. 감염병, 암 및 고부담·난치성 질환 등 보건안보 및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37억5000만원) △백신·치료제 신속 비임상 시험 실증 개발(30억원) △삼 생존자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개발(96억원) △이중장기 연구개발(60억원)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개발(16억원) 등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지원한다.

첨단 ICT기반의 차세대 암 전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70억원을 증액한 74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해당 사업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양질의 데이터 생산 및 활용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료정보교류 의료기관을 1000개소 확대해 8500개소를 확충했다. 의료기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75억원) 및 원격진진 모형(3억원)에 대한 실증도 실시한다.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사업 예산규모는 크게 줄었다. 141억원에서 97억원으로 44억원을 감액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방향이 확산에서 건전재정 기초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재정규모는 예년보다 확대 편성하였다. 이는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예산안에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광장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며

복지포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치매관리사업 그리고 또 다른 시작



김영석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 1항을 보면,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일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빈곤 정책은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통해 진행되었는데,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의 변화는, 사회복지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변화로 받아들여졌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사회복지의 날을 지정한 것이다.

사회복지의 날 취지를 살리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사회복지주간이 되며, 중앙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지방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고,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 유공자들을 표창하고 위로하는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23회를 맞이하게 되는 사회복지대회를 준비하면서, 혹시나 변수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야외에서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종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대부분은 취소하고, 유공자들에게 표창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기에, 특히 올해 대회 준비에 생

기 많아지는 것 같다.

올해 제23회 충북사회복지대회는, 제천 한방엑스포 행사 기간인 10월 7일 제천 한방엑스포 주 무대에서 갖게 되는데, 3년 만에 야외에서 대면으로 갖게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좀 더 알차게 준비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진심으로 위로받고 힐링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을까? 대표로 선정된 몇 명에게 표창을 주는 것으로 행사에 만족한다면, 잘 못 된 방식이 아닐까? 하는 고민도 있다. 이 고민은 사회복지협의회회장이 되기 전부터 가져왔던 것이었지만, 아직도 시원스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또한 고민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바란다. 사회복지의 날을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정했다면, 최소한 매년 사회복지 주간이라도, 종사자들이 진심으로 위로받고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선정된 대표 몇 명에게 표창만 주고 끝나는 보여주기 행사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가 정치적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영역임을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대 국민 홍보활동 역시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중요한 역할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이제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바빠죽었는데 사회복지의 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무관심이 현장의 솔직한 모습일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사회복지 현장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제는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바쁘다는 핑계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사회복지 현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 사회복지인의 축제인, 2022 세계사회복지대회가 10월 26일~28일까지 서울에서 열리게 된다.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2 세계사회복지대회에도 많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진정한 사회복지인의 축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클라이언트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매일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장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상수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장

지난 22일,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는 제15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이하여 3년 만에 대면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2022년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및 충북노인건강문화대축제'라는 이름으로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과 공동으로 준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멈춰진 치매관리사업들이 하나씩 정상화되고 있다는 희망신호로 불 수 있다.

치매극복의 날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알츠하이머병협회(이하 알츠하이머)가 공동으로 설립한 치매관리법에 따라 매년 9월 21일을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로 정한 것이 시초가 되어, 한국에서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9월 21일을 전후하여 치매극복 유공자 표창, 치매체험박람회, 건강강좌 등 다양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통해 치매극복 주간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이번 2022년 충청북도 치매극복 주간행사로는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개최 뿐만 아니라 도내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협업 작품도 함께 전시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도내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으며, 특히 도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치매조기검진뿐만 아니라 환자 맞춤형사례관리, 예방관리사업,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치매인식개선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작년보다 완화되면서 대면사업을 조금씩 진행

하고 있으며, 가장 먼저 '치매환자 실종예방 모의훈련'을 통해 지역사회에 깊숙이 뛰어들었다.

이는 치매환자 실종 시, 지역주민의 대응력 향상을 위해 고안한 사업으로서 전통시장 주변에서 모의 실종 치매환자를 발견하고 직접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이를 통해 주민들은 배회하는 치매환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배회인식표 등 실종 치매환자를 만났을 때 대처법을 경험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진행된 사업은 '치매안심극장'이다. 안심극장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여가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치매환자와 함께 지역에서 살아가는 치매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화 상영 전 간단한 영화 해설과 특강 후 치매관련 영화를 상영하는 데 치매환자와 가족, 일반 주민들이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영화 상영이 끝나고 참여 주민들은 하나같이 "코로나로 인해 집에만 있어 울적했는데 이렇게 영화도 보고, 치매공부도 하고 매우 좋다"며 목소리를 높여 들뜬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도내 곳곳에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주민 참여형 치매관리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치매관리사업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들을 발굴하고 지역 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치매극복의 세상도 그리 멀게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치매라는 질병은 환자 혼자서만 앓는 질병이 아닌 피할 수 없는 초고령사회에서 지역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여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과 사업에서 사회복지사들의 활약은 절대적이다.

이번 제15회 치매극복의 날을 기점으로 우리가 해온 치매관리사업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한 발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치매극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충청북도 치매관리사업이 조금씩 진행

현장의 목소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 6주년을 즈음하여...



최수진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 팀장

2014년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염원이 담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면서 2016년부터 전국 광역자치체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자리를 잡으며 2022년 현재 중앙·광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비롯해 16개의 광역·시·도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발달장애인 지원 전문기관이라는 지역사회의 기대를 안고 2016년 12월 1일 개소하여 필자도 개소 이후부터 종사자로서 함께 하며 동료들과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나가는 즐거움과 분주함으로 지내다 보니 어느새 6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지

나갔는지 싶으면서도 하루하루가 새롭기만 하다. 현장에서 만났던 많은 분들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과 관련한 일이라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였기에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이루어낸 성과들도 많았고 혼자라면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함께해 나가다 보니 만나는 분들과 동반성장하고 있음을 체감하며 일해 온 것 같다. 더불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어디까지 왔는지... 앞으로 지역에서 어떠한 역할로 성장해 나가야 할지 연차가 쌓일수록 고민되는 것도 사실이다.

개소 초기부터 개인 지원계획 수립, 권리구제, 공공후견, 발달장애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공공서비스가 확대되며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영유아, 성인 전환기, 성인권),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그 외에도 장애등급제개편, 인권조사, 발달장애인의 어려운 행동 지원을 위한 한·일 세미나, 교육연수 및 컨설팅, 부모교육 세미나, 당사자 교육, 부모 및 종사자 교육, 이해하기 쉬운 자료 제작 등 관련된 일이라면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을 협력하고 추진해오며 지칠 때도 있지만, '나는 아직 꼬마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현장은 무엇인가 같고도 있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다.

현재 충북에는 2022년 6월 장애 등록 기준 11,794명(지적 10,891명, 자폐

성 903명)등록되어 있으며 2016년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개소 시기의 발달장애인가수 10,005명(지적 9,427, 자폐성 578)에 비하면 지난 6년여 간 도내 등록 발달장애인은 18%가 증가하였고 지적장애가 16%, 놀람게도 자폐성 장애는 56%나 증가하였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제도의 확대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장애 출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충북의 전 지역을 다니며 만나는 대다수의 발달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어려움이 장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지원이나 돌봄 등을 하고 있는 가족들도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코로나19 유행으로 발달장애인들은 지역사회시설 이용과 외출의 어려움(31.5%), 학교 등 교육 시설 이용 중단(30.2%) 등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으로는 보호자 사후에 대한 막막함(34.9%),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12.2%), 발달장애인의 건강 악화(6.9%), 경제적 부담(6.8%)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에 대한 뉴스만 봐도 발달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참사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진다.

몇 달 전 발달장애에 관한 기관종사자, 부모님들과 함께 화상으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다. 참석자 중 한 분이 발달장애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걱정이 많으며 어마어마한 질문을 쏟아내며 아이의 장애로 인해 불행하다고 이야기하자 해외에 살고 있는 부모님이 던진 화두는 '왜 내 아이의 장애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였다. 자신은 자녀가 발달장애로 등록된 후 지역의 지원체계가 가동되어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었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자녀와 산다고 해서 일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니 한국의 부모들과 종사자들도 발달장애인의 당연한 삶의 권리를 요구하라고 말이다.

최근 정부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발달장애 특성과 욕구를 살펴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좀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 등의 움직임도 있으니, 돌봄, 교육, 여가, 교육, 일상 등 어느 것이든... 발달장애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도록 사회적인 제도가 확대되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도 평생 돌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의 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바라본다.

자녀의 발달 지연과 발달장애를 알게 되면 불행한 사회가 아닌 사회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걱정할 일이 없는 사회를 꿈꾸며 지난 6년간의 소회를 마무리할까 한다.

똑똑똑! 법률상담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상담터

법률상담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시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